

## Chromite 물질의 자기상호작용에 관한 Mössbauer 분광연구

최강룡 · 김철성\*

국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,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-1, 136-702

(2007년 1월 12일 받음, 2007년 2월 12일 최종수정본 받음)

최근 geometrical frustration 현상 및 멀티페로의 효과가 Cr 이온의 나선 스핀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Cr 이온 자리에 Fe을 치환하여  $\text{CoCrFeO}_4$ 를 제조하였고, Mössbauer 분광법에 의해 자기적 미세 구조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. 졸겔법을 이용하여  $Fd3m$ 의 cubic 스피넬 구조를 갖는  $\text{CoCr}_2\text{O}_4$ ,  $\text{CoCrFeO}_4$  단일상을 합성하였고, Rietveld 법에 의한 분석결과 격자상수는  $a_0 = 8.340$ 에서  $8.377 \text{ \AA}$ 로 증가 하였으며, Cr, Fe 이온은 모두 팔면체 구조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자기 상전이 온도는  $T_N = 97 \text{ K}$ 에서  $320 \text{ K}$ 로 증가하였으며,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서 field cooled 온도에 따른 자화 곡선의 변화를 관측하였다. Mössbauer 스펙트럼 분석결과  $4.2 \text{ K}$ 에서 공명흡수선에 대한 초미세자기장( $H_{\text{eff}}$ ) 값은 각각  $507, 492 \text{ kOe}$  정도로 나타났으며, 이성질체 이동치( $\delta$ )는  $0.33, 0.34 \text{ mm/s}$  정도로 Fe 이온상태가 둘 다  $+3$  가의 이온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.

**주제어** : 기하학적 좌절(geometrical frustration), 크롬스피넬, 피스바우어

사중극자 분열값(quadrupole splitting;  $\Delta E_Q$ )이  $1.62 \pm 0.01 \text{ mm/s}$ 도 비교적 큰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.

**주제어** : Pulsed laser deposition, 후방신란형 피스바우어 분광기,  $\text{HoMn}_{0.95}\text{Fe}_{0.05}\text{O}_3$